

제 61회 중대그회 봄 정기 공연

작 : 장진 기획 : 이윤제
연출 : 이경희

일시: 5월 4일 오후 6시, (5, 6)일 오후 1, 5시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주최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환영의 글



극회장 김명진 (전자 96)

시끌벅적한 새천년이 다가왔다. 하지만 가끔은 과연 새천년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 혼자 되묻곤 한다. 그것은 우리 극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히려 뭔가 부족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그러나 극장문을 들어설때면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같다. 무대위에서 펼쳐지는 세상은 새천년이 가져다 주지 못한 땀과 정성이 깃든 '어린왕자의 꽃'을 선사한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이것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보다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획의 글



기획 이윤제 (기계 96)

3년간의 공백..... 하지만 날 반기는 건 얼룩무늬 소파와 붉은 외투, 그리고 컴퓨터 자판..... 2달 여간의 시간이 암흑이었다. 이번 공연이 무사히 끝나길 기원한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 헌신적으로 임해준 선배 형들께 눈물 어린 감사를 보내며...극회를 사랑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내용물이 없는 쓰레기 같은 빈 병에서 그 병 안에 미래를 향한 정열과 순수한 마음 그리고 부모에 대한 孝를 가득 채워 쓰레기에서 인간이 되고 싶다.

STAFF



무대감독 양명호 (93. 범학)



무대미술 박정국 (93. 범학)



무대장치 김기하 (95. 건축)



정보 서정우 (96. 컴퓨터)



일러스트 한주영 (99. 경영)



의상 홍신배 (98. 경영)



부자 김계각 (00. 우편)



소품 최일니 (00. 우편)



진행 이욱재 (00. 5공)



음향 김희진 (99. 경영)



조명 최계인 (00. 5공)

★ 안무 : 이명옥

연극의 글



연출 이경희 (96. 캠퍼스)

1. 정상이란?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이고,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렇게 행동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가슴이 반대로 행동하면 정상입니다. 나머지는 이상성입니다. 머리가 깨이고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의 답답함을 잊을 수가 없다. 이제는 가슴이 깨어질려고 하는데... 이 작은 터널만 통과하면... 단 한번이면 되는데... 흠... 쉽진 않다. 간혁 있자! 머릿속에 나를 벗고 가슴속에 나를 느끼자!

2.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자살한 여자들의 유쾌하고 솔직한 수다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극회인들 그리고 학고객시판을 통해 힘이 되어주신 선배님들에게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배우들... 처음 혹은 마지막 무대가 되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서툰 작품을 봐주실 관객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품보석

어느날 검시실에 들어온 여섯구의 여자시신, 우연히도 이들의 死因(사인)은 모두 자살이다. 자정을 넘어 시신들을 지키게 된 여자 검시관 유화이에게 시신들이 하나씩 일어나 자신들의 사연을 말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재미있다. 죽은 이유, 죽기 전의 상황, 죽은 후 그들의 심정을 추측하는 일 모두...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섯 여자들은 자신들의 살아 있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했고 그 결과 '살아있기 싫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멀쩡한 사람들을 죽게 만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며 이런 멀쩡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만든 규범과 구조들이 우리 주변사람들에게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당연함이 그리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한다.

여자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밤새 떠드는 이야기이다.

결코 페미니즘을 내세운 이야기도 여권신장을 외치는 이야기도 아닌 그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다.

CAST



시체 1 죽자 역
-신하영 (95. 거취)
사랑, 수모, 주요한 기억하라



검시관 유화이 역
-박지희 (95. 정의)
넌 멎 기억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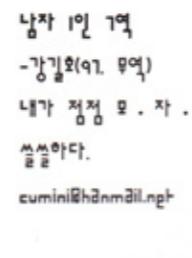
시체 4 최정미 역
-백종혜 (98. 고향)



시체 5 이수민 역
-이경미 (99. 사랑)
나는 꼬꼬다 ... 사랑은 나를 떠나기로
5aewhan-girl@naver.com



시체 3 김기인 역
-이경우 (99. 국문)
근데...
indian_blue@hanmail.net



남자 1인 역
-강기화(91. 무역)
내가 점점 모.자.라.는 놈이 되어갔다.
쓸쓸하다.
cumini@hanmail.net



시체 6 윤선아 역
-강혜정 (00. 운동)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승대극회 정기공연 연보 1921 - 1999

회	공연일시	작 품 명	기 회	연 출	회	공연일시	작 품 명	기 회	연 출
	1921년 6. 13	연홍회소인국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람"			29	1983년 107. 7.8	"트레버" by John Bowne	이원우	오정열
	1923년 7. 7.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 년 후" "기계인간" 엘옛청년회 주관			30	1984년 5. 24.25.26	"도가니"(The Crucible) by A.Miller	이종규 임세범	오세환
	1923년 7. 28.29	"소인연극" 고학 생후원회 주관			31	1984년 10. 11.12.13	"변전소" by John Stolenberg	차세훈	이용섭
1	1965년 11.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여석 作	이 반	전진호	32	1985년 5. 9.10.11	"빈민굴" by Maxim Gorky	김상현	이용섭
2	1968년 10.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33	1985년 11. 21.22.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 파레스키 作	하승민	송기범
3	1969년 10. 10	"의자들" E 이오네스코 作	이태주		34	1986년 6. 4.5.6	"에쿠우스" 피터 쉐퍼 作	허성무	하승민
4	1969년 10. 28.29	"The Miracle Worker" by Wilian Gibson	고봉인		35	1986년 9. 11.12.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 作	안상준	송기범
5	1970년 5. 15	"聖者 의 생물" by John Milington Synge	한영재		36	1987년 6. 3.4.5	"한여름밤의 꿈" by W. Shakespear	권형진 이준석	오정열
6	1970년 10. 28.29	"승부의 終末" 사무엘 베케트 作	김양기		37	1987년 9. 10.11.12	"오해" A. 까뮈 作	오정열	박경근
7	1971년 5. 26.27.28, 31. 6. 1.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날 목 삼화" 윤조병 作 "담배해독에對하여 일본 체홉作 "황금단지"(로마극) 푸라우더스 作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38	1988년 6. 2.3.4	"세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이어령 作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 6.7.8	"안내봐? 못내봐!" by Dario Fo	권태수	송근호
8	1971년 11. 4.5.11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 作	차현재		40	1989년 5. 25.26.27	"농녀" 윤조병 作	천승범	안선후
9	1972년 5. 21.22.23	"생일파티" H. 펀터 作	한영재		41	1989년 10. 10.17.18	"대성당의 살인" by T.S.Eliot	오정열	이 반
10	1973년 5. 21.22.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뒤렌마트 作	고보인		42	1990년 5. 24.25.26	"안티고네" 장 아누이 作	권태수	이준석
11	1973년 10. 25.26.27	"방" H. 펀터 作 "기도"(소극장) F.아라발 作	김득남	차현재	43	1990년 8. 30.31.9.1	"한씨연대기" 황석영 作	천승범	이영민
12	1974년 5. 25.28.30	"정의의 사람들"(전5막) A. 까뮈 作	정종하		44	1991년 5.30.31. 6.1	"생일파티" H. 펀터 作	남재우	권승혜
13	1975년 6. 9.10.12.13	"싸울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끼의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45	1991년 9. 5.6.7	"날개" 이상 作	양현준	권형진
14	1975년 10. 29.30.31	"비더만과 방학범" by Max Fish	김기열	안홍순	46	1992년 3. 19.20.21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 作	임경화 정현용	홍은영
15	1976년 6. 1.2.3	"인터뷰" 장클로드 반 이탈리 作	김기남	김득남	47	1992년 9. 17.18.19	"금관의 예수" 김지하 作	홍석환	송근호
16	1976년 10.25.26.27.28	"뱀" 장클로드 반 이탈리 作	김영덕		48	1993년 5. 20.21.22	"세일즈맨의 죽음" by A.Miller	황명식	박원상
17	1977년 6.15.16.17.18	"에쿠우스" 피터 쉐퍼 作	백정식	김영덕	49	1993년 10. 21.22.23	"택시, 택시" 김상수 作	소장호 이명성	박원상
18	1977년 10.10.11.12.13	"에쿠우스" 피터 쉐퍼 作	방영철	김영덕	50	1994년 5. 26.27.28	"굿 닉터" 날 사이먼 作	정석용	소장호
19	1978년 6. 5.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作	방영철	김영덕	51	1994년 9.29.30. 10.1	"안티고네" 소포클레스 作	소장호	박원상
20	1978년 10. 24	"에쿠우스"(대학연극제 참가) 피터 쉐퍼 作	민승기	김영덕	52	1995년 5. 25.26.27	"상자속의 여자" 김윤미 作	현승옥	류성환
21	1979년 6. 18.19	"한강 2979" 김영덕 作	정제호	이병국	53	1995년 10. 12.13.14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바스콘셀로스 作	김은성	남재우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태석 作	이정일	황정순	54	1996년 3. 7.8.9	"차살" 김현목 作	한석윤	손미라
23	1980년 11. 5.6	"아니, 이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부라이언 클라크 作	엄세범	박영권	55	1996년 9. 5.6.7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데네시 월리엄즈 作	조태희	이충희
24	1981년 6. 12.13	"노부인의 방문" F.뒤렌마트 作	이종규	황정순	56	1997년 3. 13.14.15	"우리읍내" 손문 와일더 作	신하영	서수경
25	1981년 11.12.13.14	"달맞이꽃" 김병종 作	전석근	황정순	100 주5	1997년 10. 8.9.16.17	"대성당의 살인" by T.S.Eliot	임세범	정종화
26	1982년 5. 12.13	"까리큘라" A 까뮈 作	용태웅	지숙	57	1998년 3. 18.19.20	"살인놀이" 이오네스코 作	조태희	권내리 이정미
27	1982년 10. 7.8	"쉐도우 박스" M.크리스토포 作	전희식	황정순	58	1998년 11. 26.27.28	"물고기 축제" 유미리 作	윤장환	조태희
28	1983년 6. 20.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뒤렌마트 作	전희식	김영덕	59	1999년 3. 11.12.13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作	강대인	이정원
					60	1999년 9. 2.3	"세상낚기" 이정원 作		이정원

발해 호프 (학교 정문앞)	승 실 상 회
춘천 전통 닭갈비집	박평화 헤어 스테이션
르느와르	진 흥 인 쇄 랜 드
뼈다귀 감자탕	에 본 스튜 디 오
큐피트 호프 / 식사	정 문 앞 튜 김 집
LEE'S 당구장	힐리우드 당구클럽
스피드 노래방	동아리 빌리어드 클럽
허수아비의 웃음	그린 캠프 당구장
아름이 빌리어드 클럽	미 향식당 (학교 정문앞)
비 어 24 시	■ ■ ■
시 골 집	우 리 분 식
세 원 김 밥	이 레 김 밥
가 람 문 화 사	이 고 내 집

SK Telecom

누리텔레콤 숭실대점



핸드폰 매니저
‘누리텔레콤’

핸드폰 PCS에 관한 고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숭실대
정문

SKTelecom
누리텔레콤

한빛은행

TEL. 8147-011

FAX. 8147-377